

# 민주 “대통령실, 김건희·명태균 국정농단 자백하라”

명 “입 열면 세상 뒤집어저” 파장  
“尹 격노 사안인데 미온적” 비판  
일각 “특검수사 사안” 의견도  
혁신당도 “명씨와 전말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것을 고리로 ‘국정 농단’을 주장하며 공세를 나섰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명씨가 지난 8일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내가 구속되면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대체 윤 대통령 부부는 명씨와 무슨 일을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경천동지할 일인데 (명씨는) 이것이 2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니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이 고통받아야 하나”라며 “명씨와 김 여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개입해 국정을 농단했는지, 더 늦기 전에 모두 자백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명씨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미온적인 대응도 공천 개입 등의 의혹을 더 짚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해련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명씨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이 정말 ‘드라이하다’며 “그간 무슨 일만 있으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뉴스가 많았는데, 이 사안은 격노에 격노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명씨와 관련한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성호 의원은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수사에 대해 “현재까지의 검찰 행태를 볼 때 배후까지 수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한 뒤 “특검 수사 사항인가”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명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 경남 창원외곽에서 당선된 뒤 김 전 의원 측 회계책임자를 통해 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명태균 의혹’ 공세에 가세했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에 ‘명씨를 윤 대통령에게 소개한 사람은 김종민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 나오자 김 전 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거짓말”이라고 한 것을 거론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처음 밥 먹자고 해서 만날 때 (식당에) 갔더니 명씨가 있더라”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이 급한지 윤 대통령과 명씨의 친분을 속이려 김 전 위원장까지 동원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실은 빠지고 윤 대통령이 직접 전말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국힘, 사전투표 독려  
국민의힘 지도부와 부산 국회의원들이 9일 부산 유일현 금정구청장 보궐 선거 후보 사무실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후 부산 금정구 온천천에서 김경직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유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동훈 “김 여사 공개 활동 자제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9일 당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유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한 (한동훈) 계의 원들이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보도가 나왔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한 뒤 “저희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표는 검찰이 이번 주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선 “관측에 관해 설명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했다. /연합뉴스

### 국감 현장

## “지역신문, 정부 광고 집행비율 갈수록 감소”

민형배 민주 광주 광산울

정부 광고의 전국지 집행비율은 늘어난 반면 지역신문은 감소했고, 이마저도 영남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광산울) 국회의원이 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지 및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현황’에 따르면 2022년 전국지에 투입된 정부광고는 전체의 54.0%인 1226억6400만원이며, 2023년에는 57.3%인 1370억15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지난 8월 말 현재 817억 6300만원으로 5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보다 4% 증가한 수치다.

반면, 지역지가 정부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역지는 2022년 정부 광고의 46%인 1046억 3300만원을 수주했으나, 2023년에는 1019억 6100만원(42.7%), 올해는 8월말 기준 42%인



591억290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다. 2022년부터 올 8월말까지 영남 소재 지역지가 수주한 광고액은 1009억원이었으나, 호남 지역지 광고액은 335억 1500만원에 머물렀다.

영남지역의 3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호남 지역지는 특히 충청지역보다도 150억원 이상 광고 수주액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형배 의원은 “지역신문은 단순한 정보전달 기능만 맡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론장으로 지역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지역신문 활성화로 지방분권 강화, 지역소멸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정부 계통관리 정책으로 호남 재생에너지 위기”

서왕진 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

정부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정책’이 호남 재생에너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조국혁신당 서왕진(광주시당위원장) 의원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 대책으로 신규 발전허가가 중단되면서, 재생에너지가 활발한 호남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이 투자 철회를 요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하는 등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호남지역은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이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어떻게 찾아낸 지역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정부가 사다리 걷어차기 식으로 막고 있는 것은 지역 출대처를 느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전남과 달리 광주는 계통 연결 여유 용량이 충분한 만큼 지역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고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ESS(에너지저장장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광주·전남에 우선적으로 ESS 설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해,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호남에 반도체 특화단지과 데이터센터를 적극 배치하면 계통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포함한 전략적 구상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덕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안 내용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협의하겠다”면서 “호남 지역은 2031년 12월 이후, 동해안 지역은 2026년 6월 이후에 접속하는 조건으로 발전허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